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개요  
2004년 11월 25-28일

**전체 주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내재적인 필요—**  
**정화, 교육, 재조성, 분별, 보호, 표현**

메시지 1  
정화

성경: 스 9:1-5, 느 13:23-30상, 마 5:8, 계 21:18하, 21하, 22:4

**I. 주님의 회복은 유일하며, 회복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종류의 혼합에서 순수하게 되어야 한다.**

- A. 바벨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들에 속한 것들의 혼합이며, 바벨론의 원칙은 사람에게 속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고 육체에 속한 것들과 그 영께 속한 것들을 혼합하는 원칙이다—대하 36:6-7, 스 1:11, 계 17:3-5
1. 바벨론의 일부인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며, 바벨론적인 것은 무엇이든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시킬 입지를 준다—수 7:1-21.
  2.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원칙을 가장 미워하신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적인 것을 모두 심판할 때에만 우리 역시 바벨론의 원칙을 미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
- B. 에스라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백성 중에는 혼합이 있었다. 그러나 에스라는 “거룩한 씨”를 이교도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시킴으로써 회복을 정화했다—스 9:1-15.
1. 주님의 회복은 반드시 순수하고 혼합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화하는 일을 수행할 에스라들과 느헤미야들이 필요하다—느 13:23-30상.
  2. 지방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혼합에서 정화되어야 한다—딤후 2:21.
- C. 사도행전 21장과 야고보서에는 혼합이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가 혼합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 사도행전 21장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끈적한 혼합을 폭로한다. 이러한 혼합 때문에 하나님은 티투스와 로마 군대를 보내셔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게 하신 것이다—마 24:1-2, 22:7.
  2. 야고보는 구약과 신약, 새 시대와 옛 시대, 하나님의 새 백성과 옛 백성, 새사람과 옛사람을 혼합시켰다—약 1:1, 17-18, 2:1-4, 8-12, 3:2, 4:11-12, 5:10-11.
- D.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큰 문제점은 자아와 영의 혼합이다—히 4:12.
1. 이러한 혼합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 안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혼합이 많기 때문이다—딤후 1:3.
  2.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은 순수하며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이 흘러나올 때 혼과 몸을 통과하면서 더럽고 부패한 것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고후 7:1.
  3. 영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의도와 여러 혼합물들을 처리하는 데 강조를 둔다—살전 5:23, 딤후 1:7

**II.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해야 한다.**

- A.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마 5:8, 욥 42:5, 계 22:4.

1. 마음이 순수한 것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갖는 것이다—고전 10:31.
  2. 순수한 마음은 주님을 유일한 목표로 취하는 마음이다—딤후 1:5, 딤후 2:22, 시 73:1.
  3. 신약의 인식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부가 되고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마 5:8, 계 22:4.
  4.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하고 주님의 회복을 위해 단일해야 한다. 그럴 때만 우리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딤후 1:5, 딤후 2:22, 벰전 1:22.
- B.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행 23:1, 24:16, 딤후 3:9, 딤후 1:3.
1.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다—행 23:1, 24:16.
  2. 순수한 양심은 어떤 혼합에서도 정결하게 된 양심이다. 이러한 양심은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추구한다고 증언해 준다—딤후 1:3.
- C. 일을 하기 위한 첫째 자격 조건은 영이 순수한 것이다—고후 6:4상, 6.
1. 영이 순수한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고후 7:1.
  2. 순수함은 인도 직분에 대한 선결 조건이고 우리의 봉사의 기본 조건이다—딤후 3:9, 1:5.
    - a. 주님의 일이나 주님의 교회에 관련된 것에서 순수한 동기를 찾기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처럼 혼합의 문제는 일꾼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딤후 1:3, 딤후 3:9.
    - b. 불순함은 자주 오해와 의심의 원인이 된다—딤후 1:15.
  3.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위협스럽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모든 혼합을 완전히 처리해야 한다.
  4.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해방되어야 하고 순수하게 되어야 한다—고후 6:4상, 6.

### III. 새 예루살렘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고, 성의 길도 투명한 유리와 같은 정금이다—계 21:18하, 21하.

- A.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한다. 성이 정금이라는 것은 성이 신성한 본성에 속하며 신성한 본성을 성의 요소로 취했다는 것을 가리킨다—계 21:18하.
- B. 길과 성의 정금이 맑은 유리와 같다는 것은 성 전체가 투명하며 불투명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계 21:21하.
1.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유일한 길로 취한다면 혼합된 것이 조금도 없이 순수할 것이며 불투명한 것이 조금도 없이 투명할 것이다.
  2. 우리가 생명 주는 영으로 주입받고 적셔진다면, 우리의 내적 존재는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게 될 것이다—고후 5:21.
- C.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교회 자체가 반드시 정금이 되어야 한다. 즉 전적으로 신성한 본성에만 속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하다—계 1:11, 20.
- D. 변절한 기독교계와 진정한 교회의 차이점은 하나는 혼합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순수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 교회들은 새 예루살렘과 같이 혼합된 것이 전혀 없이 반드시 수정처럼 맑아야 한다—계 22:1

2004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표어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해지도록  
반드시 모든 종류의 혼합에서  
순수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재조성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정상적인 상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